

52개 생필품 선정...물가 집중 관리

학원비·라면·버스로·이동통신료 등 추가

소득 40% 이하 계층 자주 구입 품목 반영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필수품 52개에 학원비와 라면·버스로·소주·유류·이동통신료·공동주택관리비·쇠고기·돼지고기 등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활필수품은 소득 40%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최근 1년간 5% 이상 상승한 품목으로 밀가루·라면·배추·무·두부·파·마늘·고추장·식용유·달걀·사과·스낵과자·세제·휘발유·경유·LPG·자전거·전철로·시내버스료·도시가스료·학원비·가정학습비·납입금·삼주·보육시설이용료·시외버스료

또 최근 1년간 2.5% 이상 오른 품목으로 쌀·소주·등유·화장지·상수도료·목욕료·쓰레기봉투료·공동주택관리비·위생대·외래진료비 등 10개가 포함됐다.

이외에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하거나 하락한 품목으로는 빵·쇠고기·돼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52개 품목

▶ 최근 1년간 5% 이상 상승한 품목(26개)

- 밀가루, 라면, 배추, 무, 두부, 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사과, 스낵과자, 세제, 휘발유, 경유, LPG, 자전거, 전철로, 시내버스료, 도시가스료, 학원비, 가정학습비, 납입금, 삼주, 보육시설이용료, 시외버스료

▶ 최근 1년간 2.5% 이상 상승한 품목(10개)

- 쌀, 소주, 등유, 화장지, 상수도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공동주택관리비, 위생대, 외래진료비

▶ 최근 1년간 2.5% 미만 상승 또는 하락한 품목(16개)

- 빵, 쇠고기, 돼지고기, 밀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설탕, 우유, 유아용품, 바지, 전기료, 이·미용료, 주거비, 이동전화회료, 유선방송수신료

자료: 기획재정부

지고기·멸치·고등어·콩나물·양파·설탕·우유·이·미용료·주거비·이동전화회료·유선방송수신료 등 16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52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은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일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韓銀총재 “서브프라임, 최악 상황 지났다”

국내 주택시장 위기 가능성은 멀해

저축은행 연계 PF 대출 불안 요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조선히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포럼인 ‘제6회 세계의대 미네르바 포럼’에서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한국경제’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보다) 더 대형사건이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위기

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며 “저축은행과 연계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불안요인이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급등과 관련,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유로, 엔·달러, 원·달러 환율 모두 전장을 한번 테스트한 것으로 한계선을 한번 갔다왔다”고 보며 “달러당 910~920원은 우리나라 경제로서 버거운 수준인 만큼 지난해까지의 원화강세가 자동조절되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중국·인도 같은 인구대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성격에 의해 진행됨) 과거 파동처럼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대형마트 주유소’ 나오나

유류제품 구조적 가격 안정 유통시장 개선

정부가 25일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52개 생활필수품 물가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유류제품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뜯어고치겠다는 부분이다.

특히 대형마트가 자기 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하도록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일반화=세계 최대 할인점 체인인 미국 월마트는 지난 2006년 미국 전역 매장에서 바이오연료로 바꾸고 있는 에탄올 85%에서 휘발유 15%를 섞은 대체에너지 E85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할인점인 월마트가 이런 구상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자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 전역의 월마트 주차장에서 9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머피오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합뉴스

이런 업체가 국내에도 가능하게 됐다. 제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 방안으로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와 연계해 대형마트들의 자체상표 주유소 사업을 벌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 참여의지=난제도 많아=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지만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

우선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타진해봐야 한다. 민간업체의 참여의지가 있다해도 물량 확보와 입지조건상의 제약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정부는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와 연계해 대형마트가 자기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할당관세 인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석유제품은 별로 없다. /연합뉴스



삼성 ‘햅틱폰’ 나왔다

삼성전자가 2008년 전략폰인 ‘햅틱폰’을 25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진동기능이 돋보이는 터치스크린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주택 재건축 인허가

1년6개월로 줄인다

국토부, 절차 간소화 추진

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공급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으로 현재 재건축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한다

복지부, 위해식품 상승 제조업 영업장 폐쇄

앞으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위해식품을 상승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된 식품업자에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고로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감면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긴급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나아가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하향해,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소비자 “생활형편 더 어렵다”

韓銀광주전남본부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

물가 급등·금융 불안 여파 체감경기 급락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은 올해 생활형편이 지난해에 비해 어려워졌으며,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한 ‘1·4분기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4분기 현재 광주·전남의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분기(87)보다 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현재의 생활형편이 6개월 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또 생활형편 전망CSI도 전분기(95)보다 하락한 87로, 기준치(100)

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 소비자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는 물론, 올해 말까지도 가정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소비자들은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4분기 경기상황판단CSI는 64로, 전분기(80)보다 16포인트나 하락하면서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1·4분기 전국의 소비자심리지

수는 105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생활형편CSI는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81, 생활형편 전망CSI는 전분기와 같은 93을 나타내 현재의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CSI가 100을 넘으면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생활형편이 나아졌다고 답변한 소비자가 나타났다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편 향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은 전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진 6%에 머물렀으며, 향후 6개월 내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도 5%로 떨어졌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하이엔지니어링 코리아	기밀체 중국어 출강 강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7	02-335-1002
HRN	[SKT서부지사 마케팅기획팀] 여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7	062-529-2671
귀일정신요양원	간호사(재임인 의료지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7	062-672-9931
ING생명(본사)	[광주본사영업센터]TM상담원-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8	02-3452-2612
토익검정	경리, 회계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3/28	062-604-1336
ENEX 광주중앙 전시장	전시매장 관리 사원	고졸/경력2년	1000~1200	03/28	062-369-3446
아름다운세상	정규직 편집디자인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9	062-232-0048
곰두리봉사회자활지원장	학교 공문발송, 제품홍보 상담 사원	고졸/경력1년	1200~1400	03/29	062-710-1503
풍기산업(주)광주공장	품질관리 팀장급(차장)	초대졸/경력10년	회사내규	03/31	062-973-6011
튜닝아이	소품물 운영관리/상품 이미지 제작 웹디자이너	고졸/경력2년	1400~1600	03/31	062-372-9002
에스엠텍	5톤 구매운송기사	고졸/경력1년	1800~2000	03/31	062-944-0032
모던디자인	인테리어설계업무 및 사무실업무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236-0245
뉴테크산업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1	062-953-8087
부광종합건설	현장시공 및 CAD작업기능사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3/31	062-653-42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중기청 1,500억 ABS 발행

중소기업청은 성장기 유망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국토부신한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채권 등을 기초 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개별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며 발행금리 또한 6~11%로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항후 특려권 등 기술자산을 유통화하는 전용 ABS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결산광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先. 卍日 報. 광고 마케팅국

전화 : (직)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esign@kwangju.co.kr
dd8111@hanmail.net